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열왕기하
베드로전 · 후서
요한일서

구역예배 · 에스겔서
남성구역예배 · 에베소서



5

2000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열왕기하

베드로전 · 후서

요한일서

구역예배 · 에스겔서

남성구역예배 · 에베소서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물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특별히 부활주일을 지켜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듯이, 가정의 달도 같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핵가족시대의 부정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우선적인 가치를 가족의 이기적인 행복에 두고, 그것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든지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주일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교회선생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분반 공부실 앞에 서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향해 빨리 끝내줄 것을 은근히 종용합니다. 가족의 대소사가 있으면 주일을 범하는 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뎌는 복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요, 자녀에게 아무 것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그 복음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2000년 5월

위임목사 김 성 관

베드로전 · 후서 서론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주변의 이교적 환경으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신에서는 교회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곧 파괴적인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총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친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목격했고 그가 오신 메시아요 또한 오실 메시아임을 명백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거짓선생들이 나타나 의심의 가르침을 펼지라도 그것은 결코 요동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AD 64-66년 어간에 ‘바벨론’으로 묘사된 로마에서 이 서신을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내용

베드로전서

1. 성도들의 구원(1:1-2:12)
2. 성도들의 복종(2:13-3:12)
3. 성도들의 고난(3:13-5:14)

베드로후서

1. 성도들이 지닐 소망에 대한 보증(1:1-21)
2.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난(2:1-22)
3.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증(3:1-18)

요한일서 서론

사도 요한은 자녀와도 같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서 편지를 쓰되, 특별히 세속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직면한 성도들을 진리로 지키기 위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은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핍박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핍박의 주도자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AD 95년 경일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과과의 사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빛 가운데 거하는 삶과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주요내용

1. 사귄의 기초 (1:1-2:27)

- 1) 서론(1:1-4)
- 2) 사귄의 조건(1:5-2:14)
- 3) 사귄이 필요한 이유(2:15-27)

2. 사귄의 행동 (2:28-5:21)

- 1) 사귄의 특징(2:28-5:3)
- 2) 사귄의 결과(5:4-21)

어떤 철학자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불멸과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편 71편을 기록한 아삽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이 실족할 뻔한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깨닫고 나서야 악한 자의 형통이 참으로 보잘 것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불타는 사명감을 느끼기라도 하듯, 예루살렘에 우상을 끌어 들여 숭배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우상 박물관처럼 만들어, 남북의 모든 열왕들이 간헐적으로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신접한 자와 무당을 신임했습니다(6절). 백성들을 찢어 열방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도록 부추겼습니다(9절). 이 모든 최악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했습니다(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 가장 오랫동안 권좌를 누린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무려 5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온갖 악행을 영원토록 남겨야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나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행전으로 기록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역사 속에서는 항상 예민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시류를 따르는 자와 상황과 관계없이 원칙을 붙드는 자가 나뉘어지곤 했습니다. 요시야 등극 당시 유다 상류사회에도 이러한 두 줄기의 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계파는 므낫세의 권좌 아래서 야단스레 우상숭배에 참여하다가 므낫세가 잠시 회개하자(대하33:12-13) 약삭빠르게 여호와의 섬기는 시늉을 내고는 또 다시 아몬의 집권과 더불어 우상숭배를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계파는 조용히 참된 신앙에 붙어있던 자들로서 새 왕 요시야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시야는 일찍이 8세에 등극하여 정치적 모리배들을 멀리한 가운데 왕권을 행사하면서 경건한 신하들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의 심령이 깨끗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의 깨끗함은 그가 성전수리를 명한 것과 더불어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아마도 심판의 말씀 - 16절)을 듣자 곧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참회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심령이 참으로 그리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찾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저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말씀앞에 겸비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병이 있으면 근원을 찾아 고쳐야 합니다. 병의 근원을 그대로 놓아둔 채, 병의 증세만 없애는 것은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병의 근원을 찾아 고친 후라야 진정한 회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악한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적당한 거래와 타협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기대한다면 진정한 개혁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던 요시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옷을 찢고자 언약을 체결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백성들과 함께 서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서약에 걸맞는 일련의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합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끌어들이린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뿌리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과 우상숭배의 장소들을 더럽히거나 부수었고, 그 일에 종사했던 자들을 폐하거나 죽였습니다. 정치적 거래나 타협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생각이나 습관들을 여전히 남겨둔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은 타협없는 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에서 모든 죄된 요소들을 도말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선대의 실수로 인해 망가진 집안을 일으켜 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후손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선대의 실수가 너무 커서 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때,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원망스런 일입니다.

요시야는 혼신의 힘을 다해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남겨놓은 오만가지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재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품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꾀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등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습니다(22-24절).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 대하여 놀라운 평가를 내리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25절). 그러나, 요시야의 이러한 놀라운 개혁도 므낫세의 실패를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도도한 배신의 물결이 너무나 거칠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시야는 선대의 죄악을 되돌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죄에 매이지 않고 꺾대를 향하여 정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특권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며 꺾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기도 제목 / ① 내 안에 진정한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이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지해서 떠들썩한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단지 한 줌 호흡에 불과합니다. 교만한 인간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순간, 사람의 존재의미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때, 팔레스타인 지방을 평정했던 유다 역시 그것을 깊이 생각했으나, 열강의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거래에 국가의 운명을 맡긴 결과, 그리고 열방에서 수입한 우상들에게 자기들의 미래를 걸었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자, 유다는 곧 열강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애굽 왕이 유다를 장악하여 유다왕을 폐하고 그 형제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우더니, 그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꿈으로써 유다왕을 애굽의 봉신으로 종속시킵니다. 그런 와중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근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후 바벨론이 애굽원정에서 실패하자 곧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 유다의 멸망을 앞당깁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들도 영적인 초라함을 곧잘 경험하곤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의 생명은 헛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매순간 주님께 순종하며 그 은총속에 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지막이 중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생을 멋모르고 악과 더불어 살던 강도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극적인 사건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평생동안 주님을 잘 섬기고 난 후 주님 품안에 거할 수 있는 은총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죄와 악으로부터 끝내 돌이키지 않는 모습처럼 비극적인 것도 없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부친이 십이 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보여준 정치적 거래의 허무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9절). 그는 바벨론에 종속된 봉신으로서 단 석달의 권세를 누렸을 뿐인데, 그 짧은 기간동안에 그는 오직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유다 땅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유능한 사람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 와중에서 이방국에 의해 왕좌를 떠맡게 된 시드기야조차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두 왕이 모두 '악을 행했다'는 것으로 최종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당장의 위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는 결단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되면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 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자녀 중에도 주일에 학원에 가느라 교회를 등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보다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부모와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때에 유다패망의 마지막 장면들은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합니다.

유다국가의 마지막 모습은 선왕들로부터 이어지는 타락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성중에 기근이 심한 중에도 시드기야왕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해낸 것이 백성을 버리고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를 가만 놓아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추격하는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 자기의 눈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후에, 그 수치스런 눈까지 뽑히는 징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왕을 잃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더라도 바른 신앙, 타협없는 견고한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저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 리들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끝까지 내 방식으로 무언가 해보고자 발버둥하는 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지만, 내가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형편은 이제 완전히 타고남은 재와 같이 변했습니다. 쓸만한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조리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예루살렘에는 타다남은 부지깽이같은 사람들과 폐허로 변한 집채들만 남겨졌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암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바벨론에 충실하고자 힘쓰지만, 반바벨론과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피살당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피어납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킨이 바벨론 왕의 호의를 입어 속국의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 일평생 항상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호야킨 개인이 누리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끝장난 듯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어떻게 꽃피는 지를 가르치시려는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같은 절망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써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나 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고난 혹은 시련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이 터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입니다.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 금광석을 용광로에 통과시키듯이 순도 높은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앞면에 훌륭하게 도안된 작품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곳에서 볼 때에 고통은 누추하고 쓸모없이 보이지만, 어느날 우리의 신앙의 눈이 뜨이면 그 사실의 참된 뜻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본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각하게 진행되던 무렵에 쓰여졌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들’이라는 죄명 하에 고향을 잃고 외곽 경계 지역으로 추방되었으며,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하려 함이라”(7절). 만약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면 고난의 용광로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화(純化)시킬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 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 소망의 삶(3절)이요 둘째는 거룩한 삶(15절)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거룩이란 세속을 모방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14절에 등장하는 '본삼다'라는 동사는 누군가의 행동이나 삶을 모방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본문과 로마서 12:2에만 등장합니다. 로마서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삶은 악한 본성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모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모방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과거의 망령된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삼시다.

기도 제목 / 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영어 속담에 '입에 은수저를 물고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신
분으로 태어나 많은 유산과 땅을 상속받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많
 은 유산을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을 통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혈통으로 탄생한 자녀입니다. 때문
 에 하늘과 땅끝, 온 세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고나는 엄청난 권리는 한가하게 인생
 을 즐기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커다란 특권은 커다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
 기기 위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우
 리의 이름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왕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고귀한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 분의 이름을 순결하고 흠 없이 지켜 나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가장 고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
 님이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가문의 유산을 이
 어받은 자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
 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
 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22절). 이
 것이 바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이 왕족의 혈
 통으로 태어났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자(信者)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
 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즈음 새롭게 많이 쓰이는 말 중에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런 면에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뱀전 1:3).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망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산 돌로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처소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산돌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경건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집(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빌3: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행하는 일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엔 하늘과 땅이 불사름을 입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벧후3:7)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이 요즈음 세상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아주 오래된 고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종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자신의 권리(자유)가 없고 자신의 소유가 없으며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갈5:1,1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과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와 순종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자로서 누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순복하며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자녀들은 부모를 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들들은 아빠와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 딸들은 엄마같이 멋진 옷을 입은 신데렐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어떤 본을 보이며 어떤 모델이 되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모델이며 완전한 모델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죄나 실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19절), 또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롬 8:17)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산 돌로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처소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처음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이 간혹 주변사람들의 권면 때문에 결혼에 대한 장밋빛 꿈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남편 될 사람을 향해서 여자는 초반에 꼭 휘어잡아야 돼! 혹은 아내 될 사람이 남자들은 신혼 초에 제대로 버릇들이지 않으면 평생 고생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결혼이란 또는 부부 생활이란 어느 한편이 주도권을 쥐느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한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임지라고 가르칩니다(엡5:22-25).

이것은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며 이루어 나가야 할 가정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진정한 머리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순종 할 줄 아는 경건한 아내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내입니다. 자신의 순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1절)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가부장적 권위가 강한 나라에서는 대개의 남편들이 군림하려는 자세를 결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들에게 부부관계에 대한 마땅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들을 더 귀히 여기라(7절)고 권면합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아내를 어떤 존재로 자신과 함께 살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마치 종이나 가정부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야말로 여러분의 평생 동역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는 목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오르겠다는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 있다면 이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한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가
지의 일에 마음을 합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같은 영적인 끈으로 묶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음을 품은 다음에 이루어
질 방향으로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입니
다. 셋째로 한마음과 형제사랑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이
루어야 합니다. 이 겸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종의 형제를 입고 자신
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빌2:6-8)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있는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며 한마음을 이루는 겸손
한자를 향하십니다(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을 창조 해 주시도록(15절) 간구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
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에는 사랑과 겸손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매순간마다 우리 맘속에 주님의 겸손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
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장애자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때로는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사 순종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 하셨습니다. 그 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길, 곧 온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섬기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 분에게는 인간의 삶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이해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과거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목하게 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희생을 묵상하며 그 희생의 목적 즉 하나님과 화목하며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말고 예수님의 희생이 가치있는 희생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목적을 잊지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사람의 죄악된 정욕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순결한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설 것입니다. 그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때의 심판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악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본문에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경계하고 더욱 더 근신하고 기도예 힘쓰며 열심히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뜻만 따릅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심판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의 죄를 경계하고 더욱 하나님과 사람에게 헌신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 베드로 사도의 사랑의 대상인 성도들의 삶에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는데 왜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같은 어려움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당사자와 주변 사람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날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승리의 찬송을 부를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먹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같은 시험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신실하게 주님안에 거하면서도 시험을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과 시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실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오히려 고난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똑같은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전혀 다른 자세로 감당하는 두 가지 유형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의 직분자는 부정적 입니다. 그들은 양무리를 섬기며 돌보는 일을 하지만 억지로 합니다. 직분이 있으므로 하기는 하지만 소극적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습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되 그 동기가 자신의 유익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가지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기타 여러가지 이권이 그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는 앞장서서 일하지 않으면서 양무리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며 그들의 헌신만을 강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두번째 유형의 직분자들은 긍정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되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동기는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무리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양무리를 향해서 그들의 헌신만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 양무리들이 감동을 받고 헌신하게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전혀 다른 자세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직분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순수하지 못한 직분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직분자들이 자원함으로 양떼들을 섬깁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서신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마지막 강조와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벧전1:3). 썩지 않고 더럽혀질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벧전1:4).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중 불같은 시험을 당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벧전4:13-14).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자들을 실족케 하며 삼키려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벧전5:7-8).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벧전5:2-4).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죄를 미워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오히려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벧전4:2). 이 모든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굳게 설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안에 굳게 섬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느 신혼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싸웠는데, 그 이유는 신랑이 차에서 옆에 있는 아가씨를 자꾸 힐끗 힐끗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즐기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정욕적인 삶을 피하려고 눈을 돌려보고 귀를 막아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마음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땀 때문에 흠뻑 젖어서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 보배로운 믿음과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성품을 부여받아 그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맺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였노라고 하면서 이러한 삶을 저버린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굳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분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소경의 삶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썩어질 것에 대한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끝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옴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 땅에서 쫓겨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진리를 확고히 다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없는 사이 계속해서 이단은 횡행할 것이기에 확고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변화산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제림의 확실함을 주지시키고, 구약성경이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 휘말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의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해석을 통해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환경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뒤흔들고 있으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은 항상 복음을 희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진리를 묵상하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진리를 묵상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이미 받은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둔채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역사를 통해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려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거짓선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호색하기를 좋아하며, 더욱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혹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멸망을 가져온 역사와 구원을 가져온 역사를 통해 본을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교만으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졌고, 노아 시대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홍수심판을 받았으며,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무법한 자와 음란한 자들은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적인 환경은 악할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롯을 보십시오. 비록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의를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경건한 길과 불의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갈 길을 보여 줍니다.

기도 제목 / ① 부정적인 역사는 지우고, 긍정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청년 시절 어느날 잘 생긴 얼굴에 목사님 아들이고, 은행직원 이라고 하면서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이웃 교회에서 혹시 이러 이러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알고보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주변에도 이러한 사기꾼들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2장에서 계속해서 거짓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궤방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성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눈에는 음탕한 기운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아직까지 든든히 서지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아 옛 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 다시 미혹을 받아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음흉한 손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신앙을 노략질하고 있으며,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의 어두운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어두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간교한 자들의 정체를 분별하여 물들지 않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소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적이고 모험이게 하는 반면, 소망의 결핍은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가져옵니다. 약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들은 도전적인 삶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주의 재림이 없다고 외치거나 주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충동질하므로 펄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앗아가기 위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재림을 믿을 수 있는가? 재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창조의 능력과 홍수 심판을 통해 재림의 확실함을 주장하고, 지금의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인간의 시간법으로 측량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단지 회개를 위해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방심하는 사이에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타서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커지게 하소서. ② 허요센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 가운데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데는 치루어야 할 대가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단들이 제림신앙을 왜곡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있는 소망을 빼앗으려는 술책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주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림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성결한 삶을 살기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평강은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주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성결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을 자기 편리한대로 해석하여 주님의 제림을 왜곡할 것이지만 그러한 세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굳게 서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재림신앙은 성결하게 움직이도록 요청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나는 분명히 내 눈으로, 손과 발로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인정하려들지 않을 때, 그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더구나 그 경험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험이라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안타까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당시 교회안에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들어와 성도들 중 일부를 미혹했습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 생겼을까요? 당대에 유행했던 철학적 전제 때문입니다. 이 전제는 육은 천하고 선은 귀하다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남의 육체를 살짝 빌어서 영으로 잠깐 오신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사도요한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직접 들었고, 그를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져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며, 증거하는 목적은 '사귄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생한 사귄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에 가능한 것이요, 그 진짜 사실을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라야 기쁨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동행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바로 나의 현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주님과 동행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② 농여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잘 못된 관계일수록 어두운 가운데서 만남이 진행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움추려든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권은 진정한 사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권은 범죄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권은 빛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은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권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사권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사권은 빛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킵니다. 어두움은 죄를 감추는 것, 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혹은 죄가 없다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곧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없는 자는 없습니다. 성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마틴 루터는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는 죄를 범한 사람을 결코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파멸에 이르도록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죄를 가장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 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어떤 죄이든 하나님앞에 고백하십시오.

진정한 사권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고백을 통해 주님과 의 진정한 사권을 이루게 하옵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린이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세게 야단을 맞을 때에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약속을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태연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곤 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런 증상은 점점 없어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질병에 가까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나서 대단히 논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언하셔서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1-2절).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과연 지키느냐입니다(3-6절). 고백해놓고서 금방 돌아서서 그 계명을 범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고백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런 자는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실한 고백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남복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도를 모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들을 내다 버리고, 참으로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줄만한 단순하면서도 매력 있는 돌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이 곳 저 곳을 다니면서 돌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돌은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낙심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 집 근처에서 참으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자기가 버렸던 그 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가르침, 새 교훈, 새 방법, 새 철학을 찾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찾고자 그토록 발버둥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주신 것들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새 계명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지만, 실상 그것들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새 계명이었습니다(요15:12). 사도요한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지금까지 말해온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진정한 사귀이 있으려면 빛가운데 거해야 하고, 빛가운데 거하려면 죄를 고백해야 하고,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에게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요구하신 그 사랑이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소서.
② 5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6월 한 달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서론

에스겔서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란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장 가운데 펼쳐질 다양한 일들을 현란한 환상과 함축적인 상징적 행동과 폐부를 찌르는 듯한 비유와 장엄한 말씀 선포로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조각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는 모자이크와 같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는 구속사의 도도한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에스겔서는 철저한 절망가운데 있는 유다백성의 회복이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거듭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로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상실한 유다백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선민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길을 찾아 가려할 때는 멸망에 이를 수 밖에 없었으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영원한 삶에 도달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본서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어 본토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또 다시 구속사의 주역이 됨으로써 역사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서 예언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 재림 후에 있을 역사 종말의 때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 중심의 새 나라의 도래가 본서의 말미(40-48장)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선포하는 40-48장이 바로 본서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서는 인류의 역사가 사단의 이끌림에

의해 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되는 궁극적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사단과의 싸움에서 담대히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스겔서의 기본 구성

요점	에스겔의 소명		유다에 임할 심판	열국에 임할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왕국의 영광			
문단	1:1 2:1 4:1		25:1		33:1 34:1 38:1		40:1	44:1	47:1 48:35		
구분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의 소명	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상징, 이상, 비유	임몬, 모압, 앗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	이스라엘 회복	국과의 전쟁	새 성전 환상	새 예배 규례	거룩한 새땅
주제	예언의 주제		패역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		
문체	많은 상징과 비유와 환상이 등장하는 화려한 문체의 묵시문학										
장소	바벨론										
기간	B.C. 593-571년										

제 1 과: 에스겔서 (5)

여호와인줄 알리라

찬 송 / 506장

읽을 말씀 / 24:1-30:26

공부할 말씀 / 28:20-26

먼저읽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기분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시는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이와 같은 점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서에는 정말로 무서운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나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를 기뻐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두 번의 경우를 22절과 2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2절:

•25절:

2. 본문에는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는 말씀이 몇 번 나타납니까?

3. 하나님은 두가지 방식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23절:

•26절:

4. 시돈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4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하심과 여호와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징계와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도 같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최근에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방식을 통해 경험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2. 시돈의 범죄는 이스라엘 족속을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의 역할을 한 것에 있습니다.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여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기는 커녕 찌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한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 2 과: 에스겔서 (6)

목 자

찬 송 / 453장
읽을 말씀 / 31:1-36:38
공부할 말씀 / 34:1-24

먼저읽기

자기만 먹이는 목자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있어서 양들은 그가 잘 먹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수단이며 먹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망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민족의 지도자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꼴을 먹고도 감사하지 않는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꼴을 먹은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꼴을 밟아버림으로써 다른 양들이 먹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족속의 망함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들의 죄악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이스라엘 족속은 총체적으로 범죄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 목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더욱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감사한 것은 참 목자이시면서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를 자초한 목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2-4절)
2.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해야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4절, 14-16절)
3. 말기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10절)
4. 신실하지 못한 목자들 때문에 흩어진 양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까?(11-14절)
4.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은 불의한 목자들의 죄악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양들의 죄악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18절, 21절)

•18절:

•21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되든지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한 가정의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뱀5:2을 함께 읽어보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2.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며, 찢긴 자를 돌아오게 주고,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양의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품어주었던 목자같은 분이 있었다면 나누어보십시오.
3.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되는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애씀을 통하여 거두었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시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중심으로 받을 때도 많고 감격없이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하여 너무 쉽게 판단하는 말을 함으로 꼴을 밟거나 남의 물을 더럽히는 행동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하여 취하시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예를 들면 설교 노트를 쓰는 것 등)

제 3 과: 에스겔서 (7)

극히 큰 군대로

찬 송 / 169장

읽을 말씀 / 37:1-39:29

공부할 말씀 / 37:1-14

먼저읽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이제 막 숨이 끊어져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는 시신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물어 보아도 그것이 다시 살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심히 말라 있습니다. 도무지 생기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가리키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 바로 이 뼈들과 같습니다.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시들은 영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히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고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히 “아멘!” 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여호와와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장면은 무엇입니까?(1절2절)
2. 여호와께서 에스겔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11절)
3.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 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3절)
4. 마른 뼈를 향한 에스겔의 대언과 함께 그 마른 뼈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7-10절)
5.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마른 뼈의 환상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게 됩니까?(12-14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인 상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심히 많고 아주 마른 뼈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 주신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당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이 보여 주신 마른뼈의 회복은 3중적인 의미에서의 성취됩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하여,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요 5:24,25)으로 성취가 되며 또한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특히 성도들의 육체가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에스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죽어 있는 영혼들 또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당신 자신이 실천하셔야 할 선포와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제 4 과: 에스겔서 (8)

새로운 소망의 청사진

찬 송 / 542장

읽을 말씀 / 40:1-48:35

공부할 말씀 / 47:1-12

먼저읽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는 아직은 예루살렘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니다. 성전이 파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현실 앞에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는 성전조차도 무력하게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의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송의 가사는 결코 헛된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영광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직접 척량해 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닫힌 눈을 열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말씀의 환상을 볼 때에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겔40:1-2)
2. 물이 흘러 나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1절, 2절)
3.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물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슥14:8, 계22:1, 사44:3, 요7:37-39 참조)
4. 물이 흘러나와 전개되어지는 양상은 어떠합니까?(3-5절)
5.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창일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7-12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족속의 포로들이 사로잡힌 지도 25년이
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
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도 14년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
입니다. 도무지 소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롭게 완성된 성전의 환상과 그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낙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
의 말씀이나 환경을 통한 계시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
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물줄기요 복음의 물줄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생수가 흘
러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된 믿
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하겠습니까? 요7:37-39
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하며 이것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3.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몇가지 단계를 거쳐서 흘러갑니다. 발목에 잠기는 단계, 무릎에 잠기는 단계, 허리에 잠기는 단계, 해염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들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고자 할 때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1 과

충 만

찬 송 / 173장

읽을 말씀 / 엡3:16-19

공부할 말씀 / 엡1:23

1. 자신을 돌아볼 때에 마음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엡 1:23을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니라

2.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당신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발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취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5:1-4을 읽어보십시오.

행 5: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행 5: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
들의 발 앞에 두니

행 5: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행 5: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 엡5:18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행5:1-4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과는 대조되는 다른 충만을 볼 수 있습니다. 무
엇입니까?

엡 3:16-19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엡 3: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엡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엡 3: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엡 3:19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5.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를 수 있는 충만은 어느 정도
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19절)

6. 충만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엡3:16-19을 통해 충만에 이르는 중요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엡3:18-19에서 찾아보십시오.

7.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당신의 기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